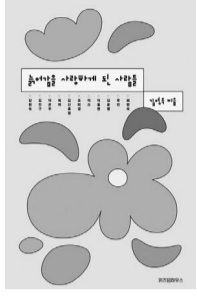


당신은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싶나요

늙어감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

김영옥 지음



미국의 계관사인 도널드 홀이 80세 이후에 쓴 에세이를 묶은 '죽는 것보다 늙는 게 걱정인'이라는 책이 있다. 그는 이 책에서 늙어간다는 것은 '마치 다른 우주로 여행을 온 것' 같다고 말한다. 그만큼 낯설고 당혹스럽다는 의미일 게다. "다른 우주로" 들어섰다는 것은 노년의 삶이 '타자'로 인식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외계인'이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다음의 내용을 보자.

"우리는 여든 살이 되면 자신이 외계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 잠시라도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반드시 깨우침이 온다. 앉은 자리에서 바로 일어선다 할 때 바로 느끼는 것이다. 우리를 녹색 피부에 머리가 돌 있고 거기에 안테나까지 달려 있는 존재처럼 쳐다보는 젊은이와 마주칠 때도 그렇다."



두물머리에서 농부로 살고 있는 김현숙 씨(오른쪽)는 다양한 연령대가 호혜적으로 연대하는 삶을 살고 있다. <위즈덤하우스 제공>

이동현과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김윤영 등이 그들이 다. 노년 생애구술을 하면서 작가의 정체성을 갖게 된 소설가 최현숙의 사례도 만날 수 있다.

책의 글은 대개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싶나요?"라는 질문과 상대의 답으로 맺는다. 요양보호사 이은주는 어린이 성장을 돕는 할머니, 환경운동가 김진호 정은 무언가를 살리는 할머니, 장애여성공감 대표 조미경은 공동체를 만드는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 한다.

저자는 "우리 사이에 노년이 산다는 것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중요한 공부의 실마리가 되길 희망하며 이 책을 펴낸다"며 "노년을 만나 노년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고, 노년과 우정을 쌓거나 '늙어감'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답게 늙어가기 원하는 이들에게 쓸모 있는 선행 학습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한다. <위즈덤하우스·1만7500원>

차별과 혐오,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싸우는 이들도 나 온다.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어스, 휴리스행동 활동가

페미니즘' 등의 책을 펴낸 바 있다.

책은 저자가 만난 각계 11명의 사람과 나는 대화를 바탕으로 쓰여졌다. 농부와 요양보호사를 비롯해 예술가, 환경운동연가, 장애여성 대표, 인권운동과 빈곤운동의 활동가 등 다양한 사람들과 나는 대화가 담겼다.

전반부는 노년을 만나 우정을 쌓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 이들의 이야기다. 이주노동자 운동을 하다 두물머리의 '데레사 농민'이 된 김현숙, 고령친화 맞춤형 주거관리 서비스 사업단의 김진구, 노년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문화예술작업을 하는 유희 등의 삶을 만난다.

말기 중증 치매 환자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을 해온 이은주는 돌봄에 대한 매뉴얼을 강조한다. 기저귀를 가는 일상적 동작에도 요양보호사와 환자의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유도라 허니셋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먼저 떠난 뒤 홀로 사는 85세 유도라 유니셋은 날마다 선글라스를 끼고 수영장을 찾는 멋쟁이 할머니다. 그러나 날로 쇠약해지면서 사는 게 재미가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유도라는 병원에 갔다가 갑자기 또래 할머니에게 안락사 안 내물을 받는다. 하늘의 계시처럼 다가온 안락사 아이디어는 유도라의 머리를 온통 차지해버린다. <한스미디어·1만7500원>



▲선생님, 4·3이 뭐예요? =4·3은 그 중요성에 비해 어떻게 일어났는지 증언은 많은 편이다. 그런데 원인과 근본적인 책임 등을 명쾌히 정리하기가 어렵다. 4·3을 연구하고 대중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주도하고 있는 저자는 제주민 자체의 이념 싸움에 책임을 돌리려는 기존의 시선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다. 외피를 벗겨내면 복잡한 시대적 배경이 나타나고 그 원인을 이해해야 상처도 아물 것이라는 신념이다. <살림터·1만8000원>

▲새로운 창세기 =지난 2021년 크리스마스 이튿날 현대의 위대한 생물학자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오스본 윌슨이 92세로 세상을 떠났다. 사회생물학의 아버지, 다윈의 계승자, 사회생물학의 아버지라 불렸던 그는 폴리처상을 두 번이나 받은 필력으로 '통섭', '바이오피리아' 등 베스트셀러를 펴냈다. 이번 책은 거미와 개미

를 채집하고 관찰하던 9세 때부터 시작된 진사회성과 기원에 대한 연구 결과물이다. <사이언스북스·1만8500원>

▲백일의 밤 백편의 시 =시는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까. 지금까지 많고 많은 시들이 창작되었지만 유독 마음을 건드리는 시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 시는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르게 읽히고 지닌 한 입장을 새로이 보게 하는 매력 있다. 백편의 시를 관통하는 주제는 다른 무엇보다 '위로'로 시의 형식과 문체, 쓰인 시기는 달라도 우리의 우리에게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어준다. <뜨인돌출판·1만8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나나와 키키의 숨겨진 문 =언뜻 보기엔 평화로운 무치 나무 마을, 그러나 이곳의 어른들은 이상하다.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말을 듣지 않으면 꿀꺽 삼켜 배 속에 가두기도 하고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리기도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는데 엄마가 삼켜 버린 언니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다. 빨리 꺼내지 않으면 영영 탯줄과 연결돼 탈출하지 못할 지도 모르는데... <보랏빛소·1만3000원>

▲동침 한 방 어때요? =오늘도 이서는 땀방아에서 겨울용 한복을 입고 조바위까지 머리에 쓴 채 몇 시간째 촬영 중이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 사람이 뜬한 소품실을 찾은 이서는 오래된 고서를 부채질하듯 흔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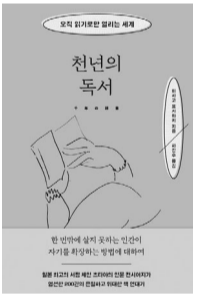
었다가 눈앞을 대구루루 굴리는 도깨비와 마주한다. 도깨비들은 이서가 오래된 시간 속에 갇힌 자신들을 구할 사람이라며 동맹을 제안한다. <그린애플·1만3000원>

▲고마워, 플라스틱맨 =플라스틱 쓰레기로 더러워진 어느 마을, 공장에서는 매일 플라스틱 쓰레기를 만들고 마을 사람들은 그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린다. 그 쓰레기는 바다로 흘러들어가 바다 동물들의 몸을 휘감거나 잘게 부서져 불고기와 산호가 먹게 된다. 황폐해진 바닷속 바다 생물의 슬픔과 분노가 가득 차서 플라스틱맨이 태어나게 된다. 수상한 플라스틱맨과 맞서 싸우려던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특서주니어·1만5000원>

인간이 자기를 확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책임기

천년의 독서

미사고 요시아키 지음, 한진수 옮김



일본 서점 츠타야는 단순히 책만을 파는 공간이 아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파는 가게' '취향을 설계하는 혁신 서점'이라 불리며 문화 전반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책을 읽지 않는 추세는 어느 나라나 비슷하다. 우리보다 책을 많이 읽는 나라라는 일본조차도, 전체 인구 중 한 달에 한권도 책을 읽지 않는 비율이 47%에 달했고(2018), 지역에 서점이 한 곳이 없는 지자체도 20%를 넘겼다.

츠타야에서 근무하는 미사고 요시아키의 '천년의 독서:오직 읽기만으로 열리는 세계'는 왜 책을 읽어야 하는

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의 답을 찾아가며 고전부터 현대 작품까지 오랜 세월 수많은 이들에게 읽혀져 온 '지혜의 목록' 200여편을 소개한 책이다.

그는 츠타야의 북진시어지이자, 책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츠타야에서 펴내는 인기 리플릿 '독서학교'의 기획자다. 1500개의 체인을 가진 츠타야에서 북진시어지는 단 13명에 불과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 그는 책에 관한 전문가다.

그가 소개하는 서적은 인간 정신의 위대한 한 장면을 포착한 책,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현미경을 비추는 책, 자본주의 위기와 기후 위기를 비롯해 사회, 환경, 과학 이슈부터 다양성 사이에 다리를 놓는 책까지 폭넓은 주제를 아우른다.

책은 7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1장 '무심코 책장을 넘기면:필연의 인생', '타인의 신발을 신어볼 수 있을까:편견을 넘어서는 상상력' '살아남는 일 말고 살아가는 일:새로운 시대의 일하는 방식', '능력을 부로 입증하는 시대에 부처:성장이라는 약몽', '우리는 왜 지금처럼

먹게 됐을까: 현대의 식탁과 요리의 기원', '느슨하게 조금씩 행복해지는 기술:명상가 뇌, 그리고 자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삶이지만:죽음을 생각한다' 등이다.

저자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이 자기를 확장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독서를 권한다. 그리고 다양한 층위의 감정과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할 책들도 안내한다. '신곡', '본노의 포도', '새클턴의 위대한 항해'에서 스러지지 않는 인간성을 발견할 수 있고, '아주 조용한 치료' '단편적인 것의 사회학'에서는 사회 전체의 미래를 응시하는 섬세한 시선을 배울 수 있다.

'선악의 경제학',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에서는 우리를 좀 먹는 성장의 모순을 지적하고, '나는 사이보그가 되기로 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죽음이란 무엇인가'에서는 삶과 죽음의 역설을 통해 왜 죽음이 삶의 반대가 아닌지, 한 번뿐인 삶을 가치있게 살려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색할 수 있다. 책 말미에는 소개한 도서 목록을 실었다. <시프·1만95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절판 판매 중

이방인
이기원 지음

문이당

문이당 | 15,000원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